어린이의 주거내 안전사고 실태조사

임 희 경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Ⅰ. 서 론

최근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의 어린이의 추락사고, 화재 등 주거내부의 재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가정재해는 최근의 중고층 아파트와 콘크리트식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택내 안전사고는 호기심이 강한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 그리고 육체적으로 허약한 고령자에게 있어서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율이 집중하고 있는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주거내 안전사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부모가 어떠한 의식과 교육을 행하고 있는가 부모의 안전교육실태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Ⅱ. 연구 방법

아동의 안전사고 실태와 부모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1997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10세미만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4월 22일부터 30일 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520부를 배부하여 44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42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Ⅲ. 분석결과 및 해석

첫째, 어린이가 경험할 수 있다고 예상되어지는 안전사고 21개항목을 선택하여 사고경험유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문에 손이 끼어 다쳤다'에 64.8%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문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가 25.6%로 나타나, 생활공간내부에서 출입구나 창문등의 문의 개폐시에 경미한 사고이지만 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에 38.2%,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에 32.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기에서는 신체 발달 미숙으로 미끄러지는 사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지각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으며, 7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주거 밖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장소로는 '집밖의 놀이터'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어린이의 생활환경에 있어서 놀이터에서의 안전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내부에 있어서는 '계단'이 22.6%와 '욕실'이 18.5%로 높게 나타나, 계단과 욕실이 어린이에게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장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욕실바닥재에 대한 미끄럼방지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계단에서의 사고는 미끄러짐, 조명시설 미비, 불규칙한 단차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관리와 함께 계단규격, 미끄럼방지 테입, 조명 등의 안전계획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었다. 한편 어린이에게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부모가 의식하고 있는 공간으로서는 엘리베이터와 베란다, 계단, 욕실바닥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층아파트 거주자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과반수가 안전관리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리베이터에 의한 사고로는 정전으로 인하여 내부에 갇히기, 작동미숙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공간으로서 조사대상자의 47.1%가 베란다를 답하였으나, 베란다에 놓여 있는 용품으로서는, '화분'(83.6%), '빨래건조대'(82.9%), '항아리류'(52.0%), '의자'(30.5%), '청소도구'(34.9%), '장난감'(22.2%)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파트의 베란다는 주택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장소로서 높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사용실태 및 어린이 출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안전계획이 요구되었다.

셋째, 어린이의 외출에 대해서 연령별로 5세 이상부터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유로이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에 따른 위험사항으로는 교통사고와 유괴범죄, 불량청소년의 폭력 등으로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남겨두고 외출시에는 전기기구, 부엌의 가스레인지, 위험한 놀이기구 등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리용 기구사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엌 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부모가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예방방법으로는 어린이 스스로가 주의할 수 있는 자세를 익히기 위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의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의식교육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